

현대불교

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탱화·단청·조각·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영식
T. 931-2287(화선), 936-0069(전시관)

그대를 위해 버려지는 평생
빅만평생통장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최고
3백만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3년이상 저축하시면 저축액
만큼의 상환기간이 최고
30년까지 가능합니다
문의: 080-523-4900
국민은행

영예회장 노대행/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논설고문 고은/편집국장 최정희/인쇄인 김규석/등록번호 다-3379/110-170 서울시 종로구 건지동 110-33/대표전화 737-8881/편집국 722-4162 FAX: 737-0698/광고국 737-0692/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1년(서기 1997년) 4월 9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제 122 호

“개혁정신 퇴색안된다”

조계종 월주원장 3주년 담화문서 ‘지속추진’ 다짐

재야단체 ‘지도부 책임행정’ 촉구

조계종개혁 3주년을 맞아 개혁 성과와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개혁당시 주도세력이었던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의장 청와 지선) 선우도량(공동대표 도법 현봉) 등 교계 8개단체는 3월 29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현 총무원이 종단개혁의 성과 되고 있다는 비판의 여론도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개혁당시 주도세력이었던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의장 청와 지선) 선우도량(공동대표 도법 현봉) 등 교계 8개단체는 3월 29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현 총무원이 종단개혁의 성과를 계승하고 새로운 종단개혁 불사를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부형사에만 주력하고 있다”며 “개혁정신을 바탕으로 종단 최고지도부로서 책임행정을 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교계 일각에서는 “현 총단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침묵·회피하고 외부형사에만 주력해와 종단개혁이 퇴색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김종근 기자>

월주원장은 담화문을 통해 “3년동안 개혁불사의 정신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직열·특별분담사찰의 지정, 경직금지, 교육원과 포교원의 별원화 등의 제도개혁이 개혁불사의 대표적 상징이라고 천명했다. 특히 ‘총무원이 금년 종단에 산이 2백여(94년 20여)로 늘어나 교육 포교 등 종단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며 “이는 직열 특별분담사찰의 지정과 운영, 예산회계제도 등 사찰과 종단의 재정운영이 부당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혁불사의 완성을 위해 제2의 개혁불사 추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재시했다. 그러나 총무원의 의지표명에도 불구하고 개혁의지가 퇴색

되고 있다는 비판의 여론도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개혁당시 주도세력이었던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의장 청와 지선) 선우도량(공동대표 도법 현봉) 등 교계 8개단체는 3월 29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현 총무원이 종단개혁의 성과를 계승하고 새로운 종단개혁 불사를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부형사에만 주력하고 있다”며 “개혁정신을 바탕으로 종단 최고지도부로서 책임행정을 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교계 일각에서는 “현 총단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침묵·회피하고 외부형사에만 주력해와 종단개혁이 퇴색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김종근 기자>



부처님 오시는 길 밝히오리 부처님오신날을 함양하여 앞두고 언어와 국경을 초월해 연등을 만드는 불자들의 마음속에는 벌써 부처님 이 오신 듯하다. (서울 회계사=고영대 기자)

교계 북동포돕기 창구 단일화

실천승가회 등 ‘공동기구’ 조계종에 제안

북한동포돕기를 위한 불교계 공식기구 결성이 추진되고 있다. 민간 대북 쌀지원을 대폭 허용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따라 불교계도 북한동포돕기를 위한 공동대기구를 구성, 창구의 단일화를 통해 활성화와 함께 효율성을 기다는 것이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의장 청와 지선) 전국불교공동연합(의장 지선) 우리민족서로돕

제출한 북한주민 접촉 요청이 3월 29일 승인됐다. 통일원은 북한주민 접촉 목적을 남북불교교류 및 북한 불교 활동 활성화 형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월주(총무원장) 해강(총무부장) 능관(사회부장)스님을 접촉인으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호)과 접촉, 식량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 한다는 방침이다. 제3회 한·중·일 불교우호 교류회의가 10월 26일~29일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계로’를 주제로 일본 교토 나라에서 개최된다. 한중일 불교우호 교류회의의 대표단은 3월 31일~4월1일까지 일본 경도 입정 교섭회와 경도회관에서 제1차 예비회의를 갖고 제3회 한중일 불교우호 교류회의의 공동선언문과 일정을 최종 확정했다.

“부처님 가르침 세계로”

한·중·일 우호대회 공동선언문 확정

이날 회의에서 확정된 공동 선언문은 “21세기는 정신의 시대로 일컬어진다. 정경시대대를 맞이하여 역사의 바른 인식을 숙지하고 정경의 재건을 고흔 사명은 사회의 안녕과 정화를 촉진하고 아시아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계로’라는 주제로 여기서 선언고

자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 선언문에서는 아시아 안정과 세계평화와 기여 사업 △삼국불교우호교류회의의 발전 확충 위한 협의 △학술과 인적교류를 위한 사업 △불교 이해를 증진 심화시키기 위한 사업 △불교교류를 위한 사업 등을 결정하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총무원장, 능관(조계종 사회부장), 지선(태고종 총무부장)스님, 덕혜(진각종 문사부장)정사 등을 비롯 신재부 중 국불교협회 부비서장, 애즈레(江連 俊明) 한일불교교류회의 회부의장 스님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지금도 그때 그일을 생각하면 대추나무 가시에 손톱만큼 찔러듯 가슴 아픈 기억을 느끼게 된다. 한 세대가 훨씬 지난 일이다. 한국에서도 세계 문명이 일하기 시작할 무렵, 풀지의 밭 및 출판사들이 세계문화잡지 간행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때만해도 막대(?)한 투지였으며 성취가 미지수였던 시도의 단계에 있었다. 출판사마다 다투어 하루라도 먼저 세상에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 성공의 기본 전략이었다. 밭밭 군데로부터 번에 부탁을 받고 나도 느닷없이 바빠지게 되었다. 더욱이 그때 나는 대학 강단에 선지 얼마 안돼 매일매일 강의 준비하는 일만으로도 바빠졌다.

‘참회의 삶’을 살자

나도 번역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다는 호기심에 끌려 열혈결에 출판사측과 계약을 하고 나서 막상 착수에 보니 예상외로 아님을 알게 되었다. 출판사에서는 약속날짜를 꼭 지켜달라는 사전 특권이 있었다. 아무리 잠을 안자고 해낸다 하여도 도저히 그 기일을 지킬 수가 없을 것 같았다. 무엇보다도 출판사가 요구하는 날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그때 나에게서는 자살명령처럼 여겨졌다.



조일중

“사기꾼이 따로 없구나”

마치 코너에 몰린 생쥐처럼 나는 한 피를 생각했다. 한 작가의 명작 두 권을 한 권으로 엮어 내자는 것이다. 그 중 한권은 남의 손을 빌리자는 명안(名案)이 떠올랐다. 하도 답답해서 궁극적으로 생각해낸 이 명안이란 것이 나중에 그토록 처참하게 죽을 줄은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 나 자신도 하루 종일 궁둥거리며 잠을 채우지 못했는데, 실사 불문과 학생이라도 양도 그렇거니와 질적으로는 너무 말 할 것이 없다. 편집자를 역시 촉박한 시간때문에 그 거친 번역을 일일이 손질할 수는 없었으리라. 새책을 받아마자 인크넷에 올린 중기는 책장을 넘겨보고, ‘아차! 사기꾼이 따로 없구나.’ 나는 두고두고 양심의 가책을 아니 느낄 수 없었다. 그후에도 번역에 손을 대면서 이 자책감을 통해 두번 다시 실수가 없기를 다짐하곤 했다. 아울러 과거의 가지가지 잘못을 뒤우치며 죄망 심혈양구공(罪亡兩滅兩空)으로 참된 참회를 삼으려 한다.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구독·광고 문의 (02)737-8881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대체가정’ 복지시설 ‘호평’ 19만 | 米壽展 연 단정장 만봉스님 9만 | 불교소설 줄이어 봄 나들이 13만

‘97 문화 유산의 해 기념!

금동 미륵 보살 반가 사유상 (축소모형) 보급

‘97 문화 유산의 해를 맞이하여 조형미와 온화한 미소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금동미륵 보살반가사유상을 소장용으로 축소 보급합니다.

■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
반가사유상은 흔히 “미륵보살사유상” 혹은 “태자사유상”이라 하는데 이는 후세에 출현할 미륵보살이 중생구제의 서원을 세우고 깊이 고민하는 모습과, 출가 전 부처님께서 ‘生老病死’의 의미를 사유하는 모습과도 일치합니다. 우리 문화재 중 여러점의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있으나 그 대표적인 작품은 국보 제 78호와 제83호의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입니다. 전면의 단아한 모습과 더불어 아래로 길게 늘어진 천의 주름이 아름다운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을 고전미와 현대미를 가미하여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하였습니다.

제품 사양

품명 :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재질 : 청동
가격 :

형태	골동품형, 코팅형
규격(폭×높이)	
11cm × 26.5cm	230,000원
16cm × 40.5cm	350,000원

* 개공을 원하시는 경우 개금비가 추가됩니다.



골동품형



코팅형(브론즈착색)

30여년간 불교조각에 전념해온 指定文化財 彫刻技能 第680호 佛敎彫刻院 이진형 院長이 심혈을 기울여 축소 제작한 작품으로 고전미와 현대적 감각을 동시에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진형
LEE JIN HYUNG

- '81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총무원장상)
- '86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특별상)
- '89-'95 대한민국전통문화재 조각회원전 4회
- '93-'94 (사)문화재 기능인 협회 회원전 2회
-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추천작가
- 지정문화재 조각기능 제680호
- 현재: 전통문화재 기능인협회 이사

제작 : 불교조각원
보급문의 :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02)732-1522, 737-8881
팩스 : (02)737-0697